

# 新羅 東宮의 苑囿에 對한 考察

鄭 在 鏣

## 一、序

一九七四年 부터 一九七六年까지 慶州古蹟發掘調査團에 의하여 慶州 東便에 인접한 新羅東宮의 苑池인 雁鴨池와 東宮 建物址의 發掘이 있었다.

이 雁鴨池는 新羅 멸망 이후에는 補修나 관리가 계속되지 않고 鎭濶 속에 매몰되었던 유적으로 보인다. 東宮의 建物址인 臨海殿址는 日帝 때 철도 부설로 인하여 일부가 파괴되고 부분적인 調査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굴로도 이 東宮의 궁궐지를 全面 발굴하지 않고 一部 建物址만 발굴하여 東宮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東宮의 苑池인 雁鴨池의 池岸과 못바닥 및 池岸에 인접된 서편 건물지는 대체로 발굴되었다.

이러한 사항 아래서 이 글에서는 雁鴨池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東洋에서 帝王의 宮城內에 苑囿를 造成하고 池沼를 파는 기록은 일찌기 周나라 文王代에서 부터 보이며 秦代나 漢代 隋、唐、時代에는 대단히 성행한 일이다.

三國史記에도 서기 三九一年 百濟 辰斯王은 宮室을 重修하면서 宮內에 苑囿를 만들어 池沼를 파고 가산을 조성하며 東城王은 서기 五〇〇년에 궁궐 동쪽에 臨流閣을 짓고 못을 파고 苑囿를 만든다. 그리고 武王은 六三四年 봄에 宮의 남쪽에 못을 파고 二〇여 리에서 물을 끌어들이 못가운데 方丈仙山을 모방하여 섬을 만든다. 이는 百濟의 漢城時代 公州時代 扶餘時代의 궁궐마다 苑囿에 池沼가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

는 것이다. 百濟는 造苑技術이 상당히 발달되어 六一二年 路子工이란 사람은 日本에 건너가 皇宮 南庭에 須彌山을 만들고 吳橋를 놓아 苑囿를 꾸민 기록이 日本書記 推古天皇二〇年條에 남아 있다. 소위 日本 飛鳥文化란 百濟文化의 移植이지만 飛鳥庭園도 百濟人에 의하여 造成된 것이다.

新羅는 수많은 宮의 기록이 있으나 苑囿를 조성하는 기록은 六七四年 文武王이 三國을 統一하고 新羅의 都京을 웅대하게 일신하려는 計劃 아래 東宮을 창건하는 時期에야 나타나 는 것이다.

아마도 新羅의 宮城이란 巨大한 苑囿를 造成할 만큼 웅대한 것이 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慶州가 平壤이나 부여 보다 협소한 地形에 있었던 탓도 있고 고구려나 百濟보다 小國이었던 것도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文武王이 창건한 東宮과 그 苑囿인 雁鴨池는 대단히 주목되는 바가 있다. 新羅는 唐이나 日本등에 자신을 과전하고 특히 唐과는 밀접한 동맹관계로 신라의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내왕하여 소위 신라에는 국제인이 많이 생겼으며 또한 三國 統一 戰役에서 百濟나 高句麗의 宮城규모를 보고 명실공히 三國 統一政府의 위신을 과시하는 궁궐로 창건한 東宮이기 때문에 그 造營의 안목이 당시 東洋의 一級에 속하는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다.

여기다가 百濟나 高句麗의 기술자들이 慶州로 물려온 때라 높은 안목의 計劃과 이를 뒷받침한 기술과 統一의 國力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는 時代性을 가지고 있다. 東洋에 있어서 中國이 일찍부터 帝王의 苑囿를 많이 造成한 나라요. 日本이 韓國으로부터 苑囿기술을 받아들여 그 遺蹟이 남아 있고 오늘날은 世界的인 造園 國家가 되었지만 雁鴨池처럼 七世紀 苑囿의 原形을 그대로 간직한 遺蹟은 없다.

雁鴨池는 一千餘年을 훌쩍 넘어서 매몰된 채 그날의 숨씨를 그대로 간직하였지만 中國이나 日本것은 王朝가 변하고 時代가 내려오면서 후인의 造營이 수 없이 보태지고 변형된 것이다.

이제 이 한정된 글에서 밝혀 보고자 하는 주안점은 雁鴨池의 構想과 그 苑圍造成의 것범이다.

## 一、造成의 背景

東宮과 관련된 三國史記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一、文武王 一四年(六七四) 二月 宮內에 못을 파고 山을 만들고 온갖 花卉와 珍奇한 禽獸를 길렀다.

二、文武王 一九年(六七九) 宮闕을 重修하여 至極히 壯嚴하게 하면서 東宮을 創建하고 宮의 內外모든 門에 額號를 定하였다.

三、孝昭王 六年(六九七年) 九月 君臣을 臨海殿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四、景德王 一九年(七六〇) 宮內에 큰 연못을 팠다. (이 기록은 宮內 다른곳에 沼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東宮 苑池를 擴張한 것으로도 보인다).

五、惠恭王 五年(七六九) 三月 君臣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六、昭聖王 二年(八〇〇) 四月 暴風에 宮의 蓋瓦가 날아가고 臨海門이 破壞되었다.

七、哀莊王 五年(八〇四) 七月 臨海殿을 重修하고 東宮에 萬壽房을 建立하였다.

八、文聖王 九年(八四七) 二月 臨海殿을 修理하였다.

九、憲安王 四年(八六〇) 九月 臨海殿에 君臣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당시 王族인 一五세의 膺廉郎을 맞아 큰 사위를 삼게 되었다. (膺廉郎

이 후에 景文王이 된다)

一〇、景文王 七年(八六七) 正月 臨海殿을 修理하였다.

一一、憲康王 七年(八八二) 三月 君臣을 臨海殿에 모아 잔치를 베풀고 王은 술이 취해 거문고를 타고 君臣은 모두 노래를 부르며 즐김에 놀았다.

一二、敬順王 五年(九三一) 二月에 고려太祖가 京畿에 이르러 배알할 것을 청하며 王은 백관을 거느리고 교외로 나가 그를 맞아 臨海殿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고려太祖는 수십일동안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 때도 잔치를 베풀고 고려太祖가 머무는 때가 三月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음)

이상의 기록에서 보면 六七四年 東宮의 苑圍가 준공된 기록이며 六七年 東宮의 궁궐 建物이 完成된 기록이다.

이는 一年에 完工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 시작은 아마도 六七四年 前에 착공된 것임을 알수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기록은 三月이 아니면 九月로 한정된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이 東宮苑의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이다. 봄에는 꽃이 가득하고 가을에는 단풍과 열매가 익어 기르는 동물과 더부러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었을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신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六六〇年 백제를 병합하고 六六八年 高句麗를 병합한 신라는 고구려 및 백제군과 함께 동맹군이던 唐軍과 六七〇년부터 六七六年까지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작은 신라가 一六年間이란 치열한 전쟁과정에서 신라 사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수있다.

六七一年 文武王이 唐將 薛仁貴에 보내는 글속에 보면 百濟를 병합한 후에도 백제의 부흥군이 도처에 일어나 唐의 一萬軍과 신라의 一千軍이 포위되어 신라는 이를 구원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였고 고구려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군량과 군사를 내어 힘에 겨운 唐의 요구를 감당하였으며 韓士에 와 있던 唐軍에게 식량數萬石을 대고 唐軍의 옷이 떨어져 남루하게 되었으며 신라백성의 옷을 거두워다 입혔으니 四年을 唐軍은 신라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였으며, 老弱者는 熊津으로 군량을 수송하고 強建한 精兵은 平壤으로 군량을 수송하여 二月 邑동동실한에도 중에 얼어죽은 人馬가 수없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작은 신라가 힘이 극도로 피폐하여 農事는 잘 안되고 백성이 草根木皮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는 사실일 것이다. 三國史記의 기록을 보면 신라군은 통

일戰役보다 唐軍과의 싸움에서 더 많이 戰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안압지를 조성한 六七四年은 唐高宗이 文武王의 勳績을 사탈하고 同生 金仁問을 新羅의 王으로 봉하는 국제적 대외관계가 악화된 때이며 唐軍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때이다.

신라의 모든 國력이 戰地에 투입되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文武王은 六七四年 雁鴨池를 조성하고 六七六年 壤宮을 창건하고 六七九年 東宮과 더불어 많은 宮을 수리하여 장엄하게 만들며 南山城 四天王寺 등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던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慶州에 百濟나 高句麗에서 유입된 기술자와 유희 노동력이 있었던 것이며

둘째는 文武王이 三國을 통일한 후 統一政府의 宮성으로서 그 위엄과 권위를 세우며 百濟나 高句麗의 都京 및 唐의 都京에 부끄럽지 않게 신라의 都京을一新하고자 한 웅대한 計劃이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文武王 자신이 말하고 있는이 西征北討하는 戰役에서 苦難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병을 얻은 自身의 心身을 保養할 처소를 만든 것이다.

신라에는 善德女王 때 이미 百濟의 우수한 工匠들이 들어와서 皇龍寺 九層塔建立에 참여 하고 있다. 근년에 발견된 皇龍寺 九層木塔의 塔誌에 百濟人 아비지와 그 기술자 二〇〇여인의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六六六年 高구려 淵淨土는 一二城의 七六三戶 三五四三名의 高구려민을 이끌고 慶州에 들어온다.

또한 文武王은 六六八年 高구려 정벌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七千名의 高구려인을 데리고 慶州에 환송하였다.

六七〇에는 高구려 大兄 牟岑이 연정도의 아들 安勝을 王으로 모시고 신라에 忠誠을 맹세한다. 이뿐 아니라 百濟의 멸망과정에서 百濟의 기술자들이 慶州에 모였을 것이며 이들을 이라한 土木工事に 동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文武王은 唐에 들어가 唐宮城의 苑囿도 보았을 것이며 百濟정벌에서 宮南池도 보았을 것이고 高句麗의 궁성도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新羅의 빈약한 國력과 京都를 일신하여 統一 王權의 위엄을 가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六八一年 文武王은 義相大師를 불러 京都一新의 응지를 밝히는 데 義湘은 草野草屋에 있더라도 政治를 正道로 하면 福業이 永遠할 것이니 百姓을 괴롭히는 일을 삼가하도록 文武王에게 권유한다. 그래서 文武王은 京都一新의 役事를 중단했다고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三國을 統一한 文武王은 신장된 王權과 西征北討하는 戰役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慶州에 돌아와서 自我의 피로한 心身을 구제 받고 한정된 人生의 生命을 영속에 이끌어 不老長生の 영화를 누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역대 中國의 帝王이 갈구하였던 것처럼 仙景을 造成하고 神仙이 되고자 한 것인 지도 모른다.

雁鴨池에는 이러한 神仙思想과 관련되어 있다. 원래 神仙思想은 한국 의 고유한 사상이다. 신라 建國神話속에 朴赫居世와 仙桃山 聖母說話나 三山五岳에 제사지내는 일 및 花郎을 神仙으로 보고 國仙이니 仙郎이니 하는 것과 眞유신 傳에 보이는 中嶽에서 神仙에 방술을 배우는 기록 등. 신라 고유의 仙思想이 있었다. 그리고 中國의 漢武帝가 宮內에 太液池를 조성하고 三神山을 만들며 隋煬帝도 東都死에 못을 파고 三神山을 만 들고 唐나라 大明宮에도 太液池가 있었다. 특히 唐代의 李德裕가 만든 平泉莊은 앞에는 샘물을 끌어다 둘러 싸고 못을 파서 巴峽의 洞延湖에 있는 十二峰을 본떴던 것이다.

東國輿地勝覽이나 東京雜記에 보이는 雁鴨池의 造山이 巫山 十二峯이라 한 것과 이번 발굴과정에서 확실히 들어난 池中の 三섬은 三神山 일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견해는 古代 東洋의 山水畫에서도 엿볼수 있는 것이다.

山水表現의 개념이 뚜렷하지는 漢代의 遺物인 人物畫像鏡(秦漢時代 安徽省出土 Freer Gallery of Art. Washington, D.C.)의 樹木이나 靈芝 文의 錦繡(前漢, 北蒙古出土 The Hermitage Museum Leningrad) 山東省 武氏祠堂 畫像石。(後漢 建和六年)과 六朝時代의 산수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顧愷之(三四四—四〇六)의 그림을 宋初에 模寫한 絹本淡彩의 「絡神賦圖」中 魯江의 仙女(Free Gallery of Art) 敦煌壁畫 등에서 神仙思想과 道教思想을 볼 수 있고 이는 自然을 신성시 하는 東洋思想의 表現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고구려의 벽화古墳의 山水畫에도 影響을 미쳐 龕神塚角抵塚 舞踊塚 藥水里古墳 通講十七號墳 眞坡里一號墳 內里一號墳 江西大墓 中墓 등의 山水畫에 神仙思想과 道教思想이 中心이 되게 되었다. 百濟의 遺物인 山景文壇에 나타나 는 것도 역시 이러한 神仙思想이 反映되어 있다. 多山을 표현하는 三山의 방식이나 惟石을 置石하는 것과 樹木 人物이 모두 仙景의 表現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古代 東洋의 苑囿造成의 사상은 仙思想의 토대위에 있었던 것이다. 雁鴨池란 명칭은 新羅때 기록에 보이지 않아 그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 三、構想과 設법

雁鴨池의 크기는 東西約 一八〇m 南北約 一八〇m의 正方形空間을 차지하고 있다. 池岸 길이는 一二八五m인데 西와 南의 池岸은 直線이고 東과 北의 池岸은 曲線이며 池面은 四七三八坪쯤 된다. 이는 唐의 坊制를 적용한 것 같다.

못 가운데 세 개의 섬이 있고 西쪽 池岸위에 五個의 建物址가 노출되어 있다.

建物址가 있는 西편의 池岸 높이는 五、四〇cm이며 그 외의 호안 높이는 二一〇cm 정도로서 서편樓가 있던 建物址 池岸은 큰 장대석이나 大形의 石材로 수직으로 쌓았고 그 외의 池岸은 높이가 二〇cm 정도의 점석으로 80. 쯤 경사지에 쌓았다. 建物址는 회랑으로 연결되어 비를 맞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건물 규모는 크고 작은 調和의 비례를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建物은 아마 樓閣 형식이었으리라 생각되며 건물에 있던 基壇은 못 속에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建物址 이외의 전 池岸 위의 水面과 접하는 곳은 自然惟石이 흐터져 있으며 이 피석은 모두 海邊에서 가져온 돌이다. 池中の 세 섬중에 南쪽에 있는 것은 南北축이 三二m 東西가 五〇m 水面 위의 높이가 三、五m쯤 되고 면적이 약 三〇〇坪이다. 못 가운데 섬은 東西가 八m 南南이 九m 水面 위의 높이가 一m 정도 들어났을 岩山인데 면적은 약 二〇坪이다. 북쪽의 섬은 東西가 三五m 南北이 三〇m 높이가 水面위에 三、五m쯤 들어난 것으로 면적이 약 二〇〇坪 정도이다.

이들 섬 池岸바닥에는 축대를 보호하기 위한 護石이 축대에 기대어 줄을 지워 놓여 있는데 이는 이 안압지의 池岸 一二八五m 중에서 建物이 있는 부분의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

섬 위에는 自然 惟石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調和있게 池岸주위와 섬산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島岸은 모두 절묘한 굴곡으로 처리되어 있다. 池岸 북쪽에는 東으로 쪽 뻗은 길이가 九〇m쯤 되는 峽이 있는데 절묘한 굴곡으로 좁았다 넓었다 하고 넓은 데는 三〇m쯤 되고 좁은 데는 四、五m가 된다. 峽의 池岸은 二〇여개의 굴곡으로 처리되었다. 이 협 좌우에 경사진 造山들이 벌려져 있다. 협의 길은 끝에는 四段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배를 매두는 곳 같기도 하다. 또 하나의 동쪽 池岸中心쯤에 峽이 있는데 길이가 三五m쯤 되고 넓이는 一四m쯤 되어 좌우에 가산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池岸의 굴곡같기도 하고 峽같기도 하게 처리된 곳이 있고 이들 峽이 造成된 곳에는 반도같은 池中에 내어민 낮은 산봉우리들이 배치되었던 것이다.

水入口는 동쪽 池岸의 남단에 설치되었는데 약 六〇cm 폭을 가진 水路에 거부같은 二段의 水溝가 연결되어 있고 물이 이 水溝를 넘쳐서 자연 惟石으로 처리된 溪澗를 통하여 池中에 폭포로 떨어져 들어 가게 되어 있다.

폭포를 만든 돌은 길이가 二m 폭이 一、二五m 정도의 自然 板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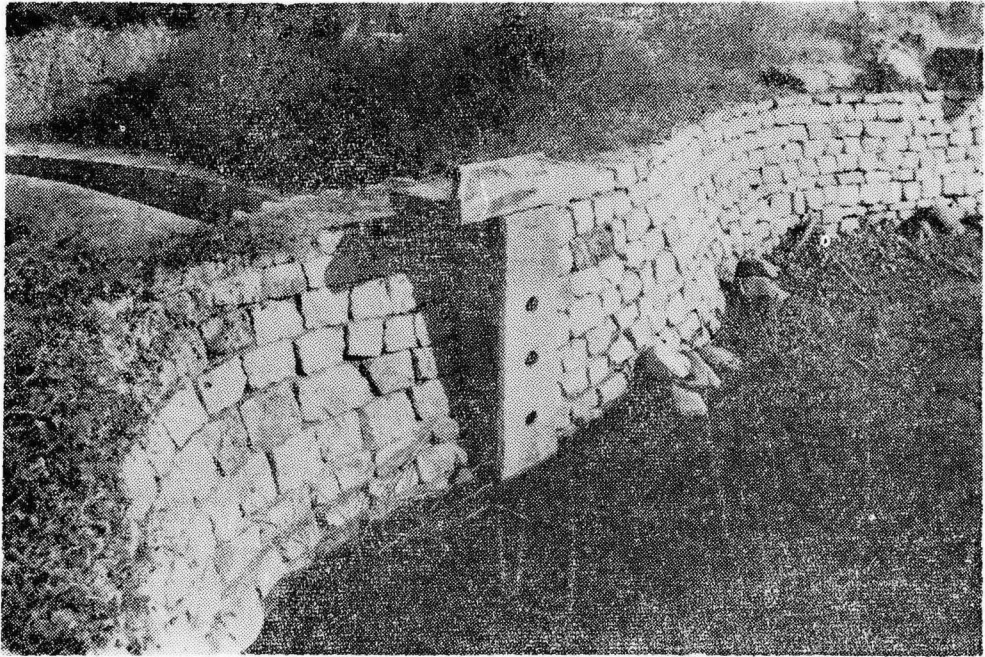


그림 1. 水出口의 시설 水面을 조정하기 위하여 단을 지워 水口가 드러있음.

물이 넘어서 1m 높이에 서 수직으로 떨어져서 큰 받침들에 부딪쳐 부서졌다가 다시 수적으로 떨어져 4段的 돌계단이 설치되었는데 이 위를 흘러 들게 만들었다.

水의 出口는 북쪽에 있는데 2, 1m 높이의 장대석 밑으로 네개의 水口를 뚫어 나무막개를 하여 水面을 조절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造山의 형체나 높이 등은 오랜 세월동안 많이 무너져서 그 원형을 알 길이 없고 동쪽과 북쪽 池岸에 일정치 않은 동산들이 남아 있다. 지금 여기에는 버들과, 소나무, 단풍, 竹 등이 있다. 그리고 池中에서 新羅時代 배가 2隻 발굴되었는데 한 척은 길이 5, 9m 너비 1m의 나무 세쪽을 접하여 만든 完形의 배이고 한 척은 木片一部가 出土되었다. 이 상이 받침의 대략이다.

그러면 이 雁鴨池는 무엇을構想한 것이며 어떤 造苑의 要素와 방법을 배웠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東國輿地勝覽이나 東京雜記, 東史綱目에 「王於宮內 穿池積石爲山象巫山十二峯 種花卉養珍禽 其西即 臨海殿地 今稱雁鴨池 在慶州天柱寺北」의 기록에서 三國史記의 造山을 巫山十二峯이라 한 것이다. 東國輿地勝覽의 慶州府條에 보이는 高麗人 金克己는 그의 詩文中에서 「神女雨收巫峽 麗人風斷洛川」이라 하였고 朝鮮 世宗代의 金時習은 「鑿池爲海 長魚螺 引水龍喉 勢岌哉」라 하였다. 金克己는 巫山의 神女古事를 연결하고 巫峽이라 한 점이며 金時習의 詩에서 朝鮮初期까지 水入口에 물을 끌어 토하던龍頭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龍頭는 水入口 지점에 있는 上段石溝에서 下段石溝로 물이 떨어지게 할 때, 龍의 입에서 물을 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巫山 十二峯과 巫峽의 神女의 古事를 알아 보자. 古文眞寶에 실려 있는 唐나라 李太白의 詩 「觀元丹丘坐巫山屏風」을 소개한다. 註. 「巫山峽 在峽州 首尾百六十里 宋玉 高唐賦 楚襄王 游於雲夢 夢婦人曰 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 朝爲行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

「昔遊三峽巫山 見畫巫山宛相似 疑是天邊十二峯(夔州 巫山 有十二峯, 望霞翠屏 朝雲 松巒 集仙 聚鶴 淨壇 上昇 超雲 飛鳳 登龍 聖泉 神女廟

居其下)

飛入君家彩屏裏 寒松蕭瑟如有聲 陽臺微茫如有情 錦衾瑤席何寂寞 楚王  
神女徒盈盈 高丘咫尺如千里 翠屏丹崖粲如綺

蒼蒼遠樹圍荊門(荊門은 地方名, 在峽東江陵北) 歷歷行舟汎巴水 水石  
潏潏萬壑分 煙光草色俱氤氛 溪花笑日何時發 江閣聽猿譏歲聞 使人對此心  
緬邈疑入高丘夢綵雲一

여기서 楚나라 襄王이 雲夢에서 仙女와 노닌 古事에서 이를 소재로한  
그림 屏風을 보고 李太白이 직접 三峽에서 巫山十二峯을 본 사실과 연  
관하여 詩를 쓴 것을 알 수 있다.

巫山은 三峽에 있으며 巫山十二峯은 望霞 翠屏 朝雲 松巒 集仙 聚鶴  
淨壇 上昇 超雲 飛鳳 登龍 聖泉이다. 寒松이 있고 아스라히 陽臺가 있  
며 비단이 불· 화려한 자리가 적막한데 楚王· 神女들의 고운 자태가 있  
다. 산줄기에는 비단같은 단애가 있고 창창한 푸른 나무가 있고 巴水에 먼  
배가 있으며 萬壑을 갈라놓은 것 같은 폭포가 있다. 煙光 草色이다. 기  
운이 왕성하고 계곡 시냇가에 꽃들이 있으며 누각에는 원숭이 소리가 들  
릴 것 같고 이 그림을 대하면 마음이 요원하여 高丘의 땅에 들어가 綵雲  
을 꿈꾸는 것 같을 것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의 仙境이다. 이러한 것을  
唐나라 李德裕도 平泉莊에 물을 끌어들여 못을 파고 巴峽을 만들고 十  
二峯을 造山했던 것이다.

雁鴨池 池岸의 造山은 이 巫山十二峯의 형태를 상징하여 만들었던 것  
이며 깊은 峽은 저 三峽의 巫峽과 巴峽등을 상징하고 그물위에 배를 띄  
우며 水入口의 물은 폭포로 만들고 그주위는 괴석으로 萬壑의 조형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싱싱한 풀이 있고 花木이 있으며 소슬한 寒松  
과 붉은 단풍과 화려한 누각에는 아름다운 宮女들이 둘러서서 초나라  
양왕의 영화를 재현했던 것은 아닐까.

안압지를 東海 바다로 상징하여 그속에 不老草가 있다는 三神山을 모  
방하여 세섬을 조성한 것 같다. 東洋의 帝王이 苑池에 三神山을 조성하  
는 것은 漢나라 武帝가 太液池에 만드는 것이 最初요, 隋, 唐을 내려오

면서 더욱 성행하였고 百濟 武王이 부여의 宮南池에 方丈仙山을 造成한  
것은 모두 앞에서 본바이다. 苑池를 바다로 상징한 최초는 隋代부터인  
데 신라는 東海로 상징하고 東宮의 殿을 臨海殿이라 하였으며 바다속에  
있다는 三神山의 說話를 따라 蓬萊, 方丈, 瀛州의 三神山을 海中에 조  
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池岸의 怪石이 모두 바닷가의 괴석이며 못  
바닥에도 바다의 조약돌을 깔았다. 이는 新羅가 원래 神仙思想을 重히  
여기고 仙敎를 화랑의 정신속에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三神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또한 中國이나 百濟의 帝王이 조성한 苑池의  
예를 보아도 그러한 것이다.

이와같은 構想에서 雁鴨池가 造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帝王의 苑池에서 찾아 볼수 있는 造苑의 要素는 무엇인가.  
中國에서는 古代 造苑을 분류하면서 민가의 가정적인 뜰을 庭이라 하  
고 大家의 후원같은 것을 別院이라 하였으며 동산을 만들거나 꾸미는  
것을 園이라 하고 넓은 自然空間의 造苑을 園林이라 하였으며 墓域을  
別業이라 하고 농장등 自然공간을 別墅라 하고 帝王의 苑을 苑池라 하여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庭이나 別院, 園은 人工的인 것  
을 自然스럽게 調和시키는 것이 主案點이며 園林이나 別業, 別墅 같은  
것은 自然스러운 공간에 人工的인 이용시설을 가장 조화적으로 배푸는  
데 主案이 있다 하였다.

그런데 帝王의 苑池는 人工的인 것을 自然스럽게 調和시키는 것만도  
아니요 自然的 공간을 人工的인 이용시설로 조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한 至樂의 공간을 人工的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또한 心身의 自我  
구제와 수양을 얻고 帝王의 권위와 위엄을 보이는 공간의 造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성내의 苑池는 人工으로 가장 自然의 아름다운  
調和를 造成해야 하고 宮城外의 苑池는 自然의 공간속에 인공을 조화시  
켜 조성해야 한다. 雁鴨池는 人工으로 가장 調和되는 自然을 構想에 따  
라 造成한 것이다.

苑池의 要素로서는 ①花木 ②水泉 ③石 ④器具 ⑤建物 ⑥山 ⑦步道등

이 있다.

花木은 또 花가 제일이요 다음이 樹이며 그 다음이 翎翎이며 끝에는 草이다. 雁鳴池에 대한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음력 三月과 九月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면 三月인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때이며 九月인 가을은 단풍과 열매가 곱게 익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때임을 알 수 있다.

우선 三國史記의 기록중 「奇花異草」와 東國輿地勝覽의 「種花卉」에서 보면 喬木類의 나무보다 灌木類의 花木과 草花類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三國史記 卷二十五 百濟本紀第三의 辰斯王 七年 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나 百濟本紀 第五의 武王 三十七年 春二月遊燕於泗沘河北浦 兩岸奇巖怪石錯立。間以奇花異草 如畫圖」의 기록에서 보아도 喬木類가 아닌 草花 및 灌木類가 대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면 「奇花異草」에 대하여 살펴보자. 中國의 옛기록인 楚辭에 보면 여러가지 香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屈原(BC, 三四〇—二七七)의 「離騷經」中 靈均에 보면 「扈江離與辟芷兮, 約秋蘭以爲佩」에서 江離, 辟芷, 秋蘭이 있다.

江離는 물속에 사는 香草이며, 辟芷는 숲속에 사는 香草, 秋蘭은 蘭의 一種이라 한다. 또 「朝塞阨之木蘭兮 夕搴州之宿莽」와, 「餘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 畦留夷與揭車兮, 雜杜衡與芳芷」에서 보이는 木蘭 宿莽, 蕙草, 留夷, 揭車, 杜衡, 芳芷가 있다. 木蘭은 木蓮 杜蘭 林蘭의 등속이며, 그외는 모두 香草의 이름들이다.

屈原의 九歌에서 보이는 杜若 薛荔도 향초의 이름이고 三秀는 芝草이며 女羅는 소나무에 사는 겨우살이라 한다. 山椒, 桂樹는 香木類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芭蕉나 菊花도 보인다.

이러한 것은 屈原의 제자인 宋玉의 招魂에도 蕙과 蘭은 화려한 庭園의 묘사속에 나타나 있다.

또 三國遺事속에 보이는 吉祥草는 百合科에 속하는 宿根草이며 古蘭

草들이 香草이다.

東洋古來로 長生の 상징적인 약초인 不老草는 人蔘같은 것으로 現實化했을 것이다. 新羅는 唐에 많은 人蔘을 보내는 기록이 史記에 보인다. 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善德女王代에 들어왔다는 茶는 景德王代의 忠談의 이야기로도 茶는 당시 신라의 중요한 나무였을 것이다.

그리고 高句麗 벽화고분인 龍神塚玄室右壁의 고사리 같은 그림이나 雁鳴池 出土의 瓦磚에 보이는 草花文이나, 고사리등 무늬는 상서로운 香草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고사리와 식물은 습기가 있는 怪石사이나 池岸에서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잘 살기도 한다. 이런 것은 日本京都의 江戸時代離宮池의 池岸에 지금도 많이 심어져 있다. 다음은 牧丹에 대해서 보면 三國遺事 紀異第一 善德王知幾三事에 「初唐太宗送畫牧丹, 三色紅紫白, 以其實三升, 王見畫花曰, 此花定無香, 仍命種於庭, 待其開落, 果如其言」의 기록이 있다.

이것을 보면 新羅에 牧丹이 이때 처음 들어오는 것이다. 牧丹은 新羅人이 보아 奇花에 속할 것이다. 다음은 桃花인데 이는 中國의 武陵桃源의 古事나 花菴隨錄에 보면 唐의 明皇이 친압벽도를 楚園에서 얻어 貴妃와 더불어 날마다 그 아래에서 놀면서 「이 꽃이야말로 恨을 풀만하다고 일컫렀다. 新羅의 仙桃山등 명칭에서 보면 仙桃라 하여 화려한 花木으로 심었을 것이다.

躑躅은 三國遺事 紀異第二 聖德王代 水路夫人條에 보면 「傍有石嶂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 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에서 躑躅花는 獻花歌의 대상이 되는 꽃이다.

紫薇는 三國遺事 「射琴匣」에 나오는 靑靑 遺蹟인 慶州 南山 東麓의 書出池에 수백년된 巨木의 紫薇가 남아 있다. 이 書出池는 朝鮮時代에 와서 苑池로 造成된 것 같기도 하지만 一見할 필요도 있다.

養花小錄中 紫薇花條를 보면 「此花在中朝 多植省中故 古之文士 皆爲之賦詠 我國省院中 不曾見此花 只有紅藥數朵耳. 唯嶺南近海 諸郡及村落 多植焉」의 기록에서 嶺南地域에 많이 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中國宮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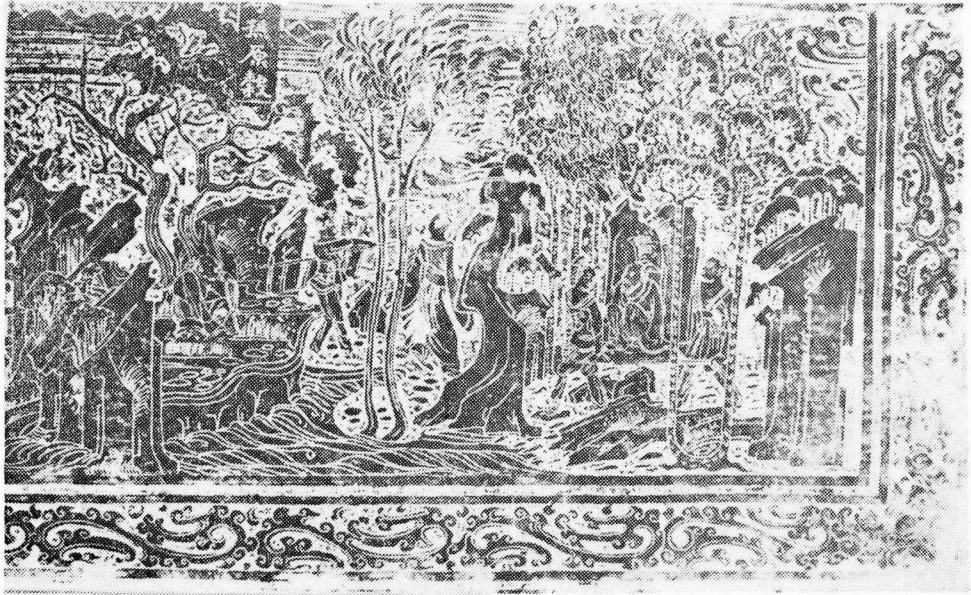


그림 2. 考行圖 石刻畫 六朝六世紀 中葉(Nelson Gorrery of Art)

의 中書省內에 많이 심었던 花木이다. 다음은 石榴인데 養花小錄 石榴花條에 보면 「格物叢話云 榴花 來自安石國 故名安石榴 亦有來從海外新羅國者曰海榴」가 있다. 新羅石榴는 有名하였다. 그리고 養花小錄을 쓴 姜希顔(一四一九—一四六四)은 世宗때에 詩書畫에 모두 능하여 三絶이라 했던 사람으로 당대의 畫家 安堅과 쌍벽을 이루는 山水畫의 大家요 文士 朴彭年 申叔舟 成三問 등과 더불어 활동했던 文人이며, 一四五五年에 燕京에 가서 그곳 文物에 접하고 東洋古來의 花木을 研究하여 菁川養花小錄을 집필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養花小錄에 나오는 花木에 대하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烏竹, 菊花, 梅花, 蕙蘭, 瑞香花, 蓮花, 石榴, 梔子, 四季花, 冬栢, 紫薇, 日本躑躅, 橘樹, 石菖蒲를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 花菴隨錄에 花木九等品을 말하였는데 一等到 梅, 菊, 蓮, 竹, 二等到 牡丹, 三等到 芍藥, 四等到 月季, 五等到 櫻, 六等到 杜鵑, 七等到 梨, 八等到 木蓮, 九等到 海棠, 十等到 木槿, 十一等到 木樨, 十二等到 木芙蓉, 十三等到 木蘭, 十四等到 木芍藥, 十五等到 木芙蓉, 十六等到 木芙蓉, 十七等到 木芙蓉, 十八等到 木芙蓉, 十九等到 木芙蓉, 二十等到 木芙蓉. 그리고 姜仁齋의 花木九品을 보면 一品에 松, 竹, 蓮, 菊, 二品에 牡丹, 三品에 芍藥, 四品에 月季, 五品에 櫻, 六品에 杜鵑, 七品에 梨, 八品에 木蓮, 九品에 海棠, 十品에 木槿, 十一品에 木芙蓉, 十二品에 木芍藥, 十三品에 木芙蓉, 十四品에 木芙蓉, 十五品에 木芙蓉, 十六品에 木芙蓉, 十七品에 木芙蓉, 十八品에 木芙蓉, 十九品에 木芙蓉, 二十品에 木芙蓉. 그리고 花庵의 九等 四五種의 花木도 同等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植物中에 慶州의 기후와 토질에 맞고 東宮의 苑圍에 調和되는 花木이 적절한 位置에 잘 어울려 배치되었을 것이다.

樹木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중에 帝王의 苑에 심은 나무의 수종이 최초로 보이는 것은 버들이다.

三國史記 百濟 武王三十五年春三月。「穿池於宮南引水二十餘里、四岸植以楊柳」의 기록이다. 이 버들은 傳 顧愷之의 「洛神賦圖卷」中 魯江의 仙女圖에서도 江가수양버들밭에 仙女가 앉아있다. 그리고 六朝時代(六世紀)의 石刻畫(Nelson Gallery of Art)의 孝行圖의 中心에 역시 二株의 버드나무가 새겨있다. (그림 2 그림 3) 뿐만 아니라, 고려 靑銅淨瓶이나 高麗靑磁의 표면에 즐겨 새겨진 나무다. 두번째는 소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李太白의 「觀元丹丘坐巫山屏風」詩속에 나오는 「寒松蕭瑟如有聲」의 구절과 巫山 二峯中 「松巒」의 峯名이 있고 傳顧愷之의 「魯江의 仙女圖」에 江가의 惟山봉우리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고 六朝시대와 石刻畫 「孝行圖」속에 老松이 있으며 高句麗고분벽화로써 內里一號墳의 玄室天井에 있는 山岳圖에 역시 소나무가 있고 江西大墓의 天井에 있는 「山岳圖」에도 소나무가 있다. 그리고 高句麗 壁畫中가장 뛰어난 山水圖인 眞坡里 一號墳의 玄武圖中 樹木은 소나무로 보인다. 百濟의 山景文 塚의 산 봉우리마다 소나무가 새겨져있다.

소나무는 長生의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하여 十長生圖에도 들어 있는 樹木으로 東洋에서는 옛날 부터 격이 높은 나무로 苑圍에 심었던 것이다. (그림 6 그림 7)

셋째는 楓인데 漢나라 武王이 宮內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 궁궐을 楓宸이라 하게 되었다. 六세기 中國 孝行圖의 石刻畫(보스톤미술관) 樹木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8) 이 단풍나무는 가을에 비단같은 색깔이 나며 그늘과 樹林및 물가의 습지에도 잘 자란다.

더구나 雁鴨池에서 九月에 잔치를 베푸는 기록을 보면 이 단풍나무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시켜 주었을 것이다. 楓은 日本 京都의 江戸時代 離宮苑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昌德宮 後苑에도 많다.

넷째 槐木을 살펴보면 槐는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를 모두 말하는 것으로 周代부터 宮城의 皋門과 應門 밖에 심었던 것이다. 그래서 槐門을 大臣의 별칭으로 쓰고 槐宸은 帝王의 宮殿 별칭이 되었다. 周代에는 宮門밖 槐木 밑에 三公이 앉아서 오는 사람을 맞이했던 것에서 槐門을 大

臣의 별칭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는 漢、唐、等 후대에 까지 宮에는 느티나무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다. 朝鮮時代宮인 景福宮이나 昌德宮에 이 느티나무와 회화나무가 가장 많은 것도 모두 그러한 연유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角抵塚 玄室左壁의 樹木圖나 舞踊塚 玄室右壁의 狩獵圖속에 나오는 巨木인 樹木들은 槐木의 表現같기도 하다. (그림 9) 다섯째는 竹이다.

新羅는 竹에 대하여 대단히 神聖視 했다. 三國遺事 紀異 第一 未鄒王 竹葉軍、條에 보면 「儒理王代、伊西國人來攻城、我大學防禦、久不能抗、忽有異兵來助、皆頭竹葉、與我軍並力擊賊破之、軍退後不知所歸 但見竹葉積於未鄒陵前 乃至先王陰鷲有功 因呼竹現陵」 이는 新羅金氏 王朝의 처음왕인 未鄒王陵에 대한 기사로서 여기에 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미추왕릉 주위에는 竹林이 있다. 또한 三國遺事 紀異 第二 萬波息笛에 보면 神文王이 感恩寺 앞 東海中의 浮山에서 竹을 얻어 만파 식저를 만드는 기록인데 「此竹之爲物 습之然後有聲、聖王以聲理天下之 瑞也、王取此竹 作笛吹之 天下和平」의 구절이 있다. 竹은 慶州地方에 잘 되며 慶州南山의 많은 寺址에 竹林이 있는 것도 특이하다. 中國帝王의 苑圍·주위에도 竹을 많이 심었으며 姜希顔의 養花小錄에도 一等的의 花木에 넣고 있다. 日本의 飛鳥時代 遺物인 法隆寺 玉虫厨子 須彌山畫에 竹이 그려 있고 江戸時代 京都離宮池에도 竹林이 덮여 있다. 竹은 아슬히 보이는 효과도 주고 부드럽고 곧은 절개도 표시하며 長生의 상징이기도 하다.

여섯째는 木瓜인데 高麗 忠烈王이 一三〇五年 元에 香과 茶와 木瓜를 받치는 기록이 있는데 모과는 아주 귀중한 공물이 되었던 것으로 慶州 地方에는 모과가 더욱 잘된다.

일곱째는 뽕나무다 夫桑이란 古代 中國에서 해가 뜨는 東쪽 바다속에 있는 신성한 나무로 여겼으며 이는 山東省 武氏祠堂의 後石室 畫像石 (一四七年)에도 새겨져 있고 太宗實錄九年三月 甲辰에 보면 太宗도 景福宮과 昌德宮內에 周나라 成王이 궁실에 만든 公桑制度를 본떠서 뽕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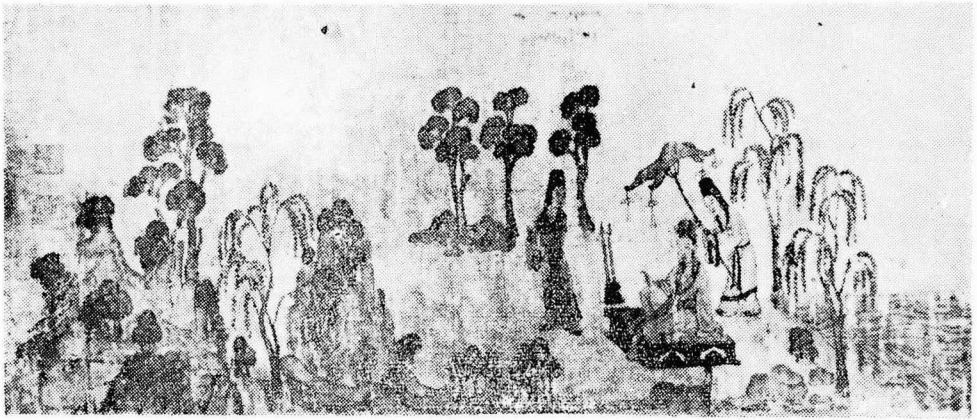


그림 3. 傳顧愷之 魯江의 仙女「洛神賦圖卷」中 東晉 344-406年  
宋初模寫圖絹本淡彩(Fneer Gallery of Art)



그림 4. 江西大墓 天井받침석쪽의 山岳圖 平南江西郡遇賢里

무를 많이 심게하고 있다. (그림 10)

현재 뽕나무들이 景福宮과 昌德宮內에 巨木으로 남아있다.

뽕나무는 활을 만드는 重要한 나무였으며 더구나 新羅의 活은 東洋에 제일이었고 누에를 치는 나무로 신라의 宮內에도 심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水泉으로 물의 근원이 연결되는 것으로는 ①懸瀑 ②自溢. ③潛流가 있고, 器具를 동원하여 물을 끌어 드리는 것으로는

①分規 ②分導 ③挹注가 있다.

그리고 물을 모아두는 형식으로는 ①湖 ②沼 ③閘堰 ④溪澗 ⑤器蓄이 있다.

雁鴨池에는 北川의 물을 끌어 들여 皇龍寺 앞 들을 통하여 流入했던 것으로 보인다. 慶州 舊皇洞들을 항공사진으로 보면 아직도 이 흔적을 알수있다 못 전체는 湖의 형식을 취하였고 물을 流入함에 있어서는 潛流 自溢 懸瀑의 묘미를 다 구사하였다. 그것은 물이 平地로 잠겨 흘러 들어오게 하여 石溝에 모여 넘치고 溪澗을 흘러 폭포로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너비 四九 cm 깊이 一〇 cm의 크기와 너비 三一 cm 깊이 一二 cm 정도의 石溝水路를 통하여 남쪽을 거쳐 東宮建物 內庭에 물이 흘러가게 했다. 이 石溝는 너비 三〇 cm 깊이 一二 cm인데 길이 二二〇 cm에서 五〇 cm 크기의 돌들이 臨海殿址에 남아있다.

다음은 恠石인데 置石에 있어서 古來로 네가지 놓는 方法이 있다. 즉 ①特置라하여 恠石하나가 獨立的으로 측면 平面 立面이 다 아름다운 것을 놓는 것을 말한다. ②群置는 恠石 하나로는 부족하여 측면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調和를 이루는 치석방법인데 크고 작고 높고 낮게 모여 놓는 것이다. ③散置는 돌의 측면이나 입면은 좋지않고 일평면을 사용하거나 깊게 땅속에 묻어 약간만 보이게 놓는 것을 말한다. ④疊置는 恠石을 겹쳐 쌓는 것인데 恠石의 石山을 만들때는 疊置의 기법을 많이 쓴다. (그림 13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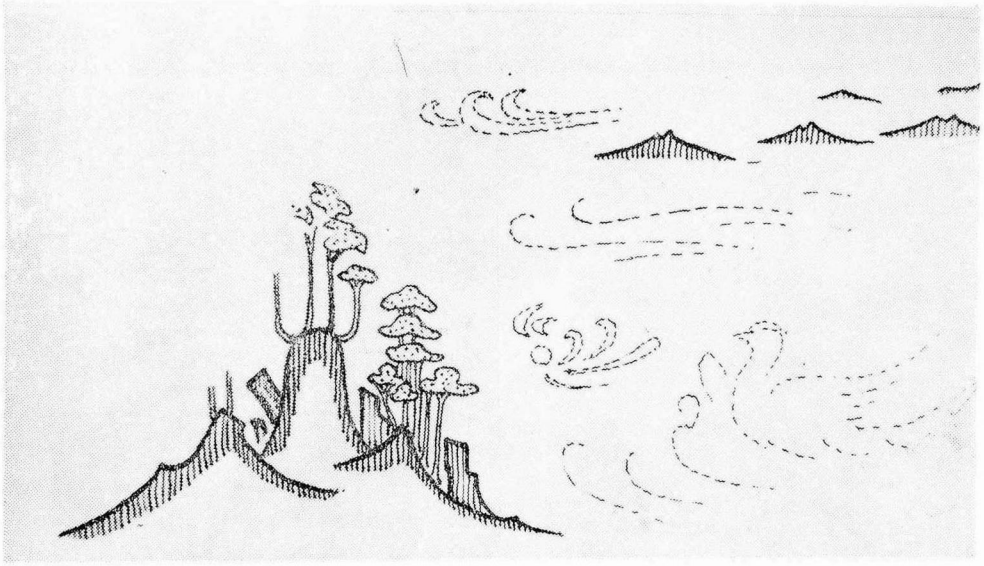


그림 5. 江西大墓天井받침 서쪽의 山岳圖中 細部 山岳模寫



그림 6. 眞坂里古墳玄武圖中樹木圖  
高句麗 6-7世紀初 平南中和郡

恠石을 苑圍에 置石한 최초의 일은 禮記에 보이는 梁武帝가 淮水 부근에서 丈六尺의 恠石을 옮겨온 것이다. 舊唐書에 白樂天은 杭州에서 天竺石과 蘇州에서 太湖石을 얻어 자기 집에 옮겨오는 기록이 있다. 中國에서는 太湖石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天竺石이다. 中國은 六朝이래 唐代와서는 이 恠石을 놓는 것이 크게 성행하였다. 唐代 李德裕의 平泉莊에는 天下의 친귀한 恠石이 다 갖추어 있었다 한다. 우리나라에는 百濟의 武王이 北浦의 벼랑에 恠石을 놓았던 기록이 三國史記에 있으며 雁鴨池에 恠石 놓는 것은 文武王 自身도 唐京에 가서 보았을 것이요 百濟의 造苑師들이 新羅에 들어와 있기도 했을 것이므로 상당한 調和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恠石은 원래 水中에서 깨낸 것이 었는데 中國의 동정호에는 幽石이 많았다 한다. 「養花小錄」에 보면 우리나라 피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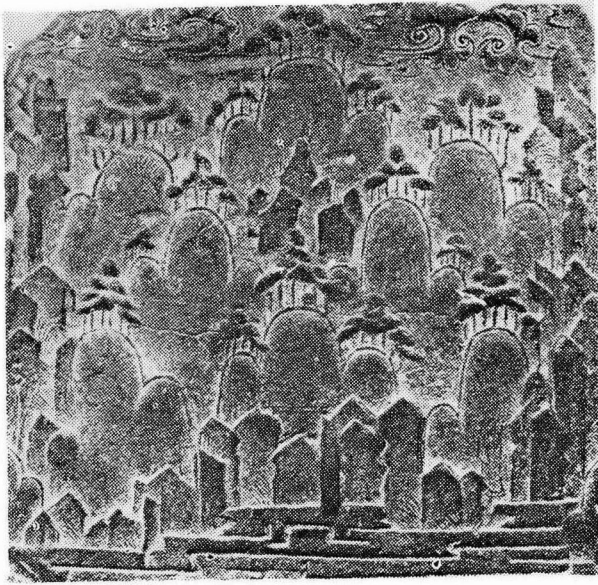


그림 7. 百濟 山景文博 7世紀 扶餘郡 窺岩面外  
里出土 4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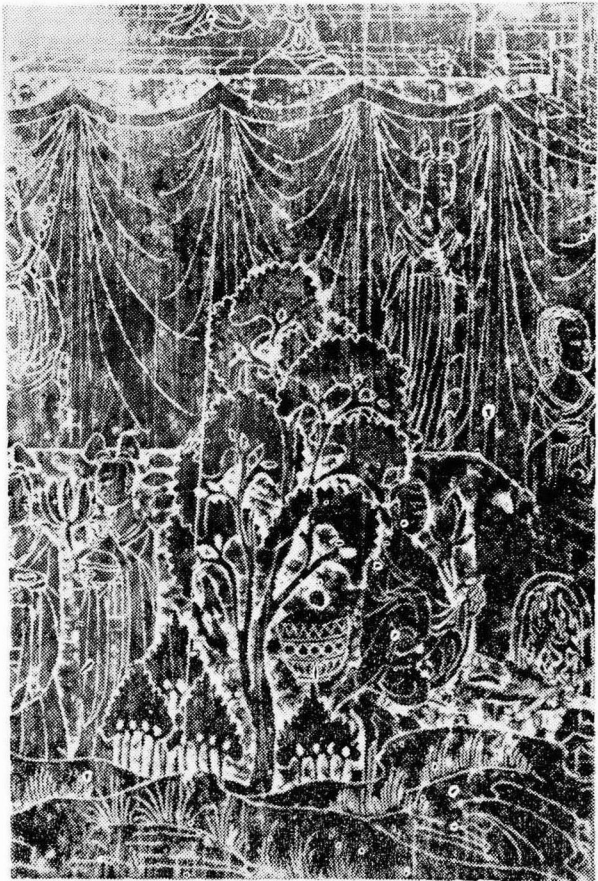


그림 8. 考行圖 石刻畫中樹木 楓으로 보임.  
Museum of Fine Art. Boston

山에서 캐는 것이 많고 產地는 松都남쪽 敬天寺 북에서 많이 나고 황해도 新溪縣에도 좋은 것이 많이 난다고 했다. 雁鴨池의 佐石배치한 것을 보면 巫山 十二峯과 三神山 위에 놓이는 큰 돌은 特置의 기법으로 置石된 것이 있고 산자락과 계곡 언덕에는 크고 작은 돌 들 이상을 서로 平面적으로 놓아 散置를 한 것도 있고 池岸 水面에 접하는 곳에는 여러 佐石을 크고 작게 인접하여 散置와 群置의 혼합 기법으로 놓은 것도 있다. (그림 15)

그리고 池中 中央에 있는 작은 三神山中 하나와 진물지가 있는 西便 직선 池岸의 水面 가까이 단이진 곳에는 特置와 疊置의 기법이 많이 보인다. 이 피석은 모두 등해바닷가의 돌들로서 암석해변의 절경을 自然스럽게 조성했던 것이다.

다음은 器具로서 湖上에 띄우는 배가 있었고 水入口에는 물을 토해내던 石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金時習의 詩에 보임) 二段의 石溝가 있다. (그림 16) 日本 苑圍에 있는 石燈같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配置하지 않았다.

建物은 苑圍속 樓를 짓는 것은 東洋에서는 周代부터 있었고 漢代에 閣이란 것을 처음 지었고 亭은 옛부터 있었으나 唐代에 가장 성행하였다. 그리고 堂이나 館, 軒, 庵, 齋 등은 文人 墨客의 뜻에 따라 붙인 것이며 이는 平屋에 속한다. 苑圍의 노니는 공간에는 臺, 樓, 閣, 亭이 많이 배치된다. 雁鴨池는 東宮인 臨海殿이 主建物이고 이를 中心으로 회랑이 둘러싸고 이 회랑의 東便과 북편이 池岸위에 배치되었으며 적당한 거리마다 樓나 亭의 화려한 建物 五個가 池中에 속 튀어나오게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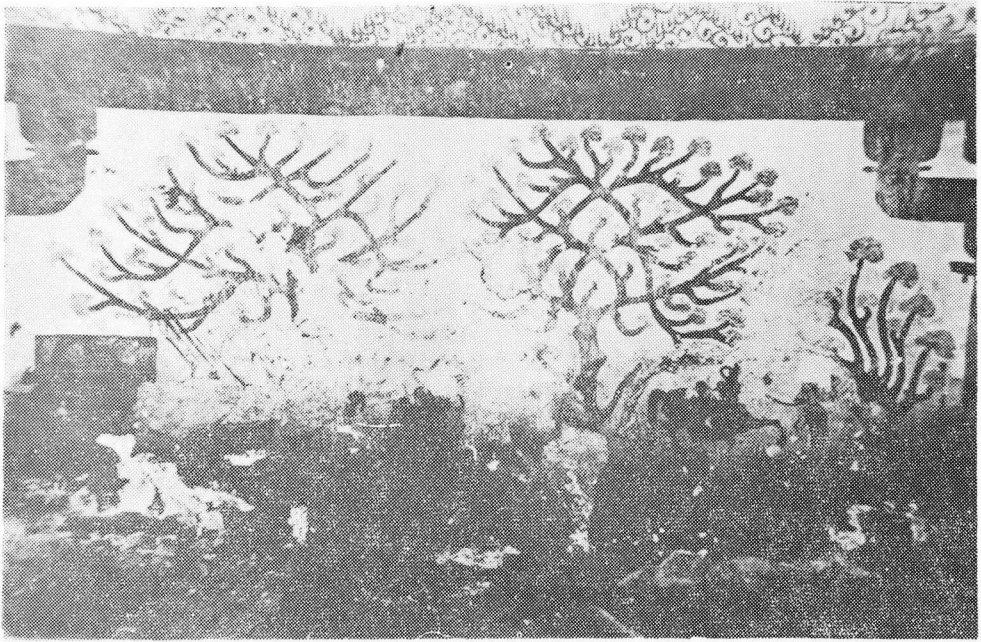


그림 9. 樹木圖 角抵塚 玄室左壁 高句麗 5~6世紀初 輯安縣 如山南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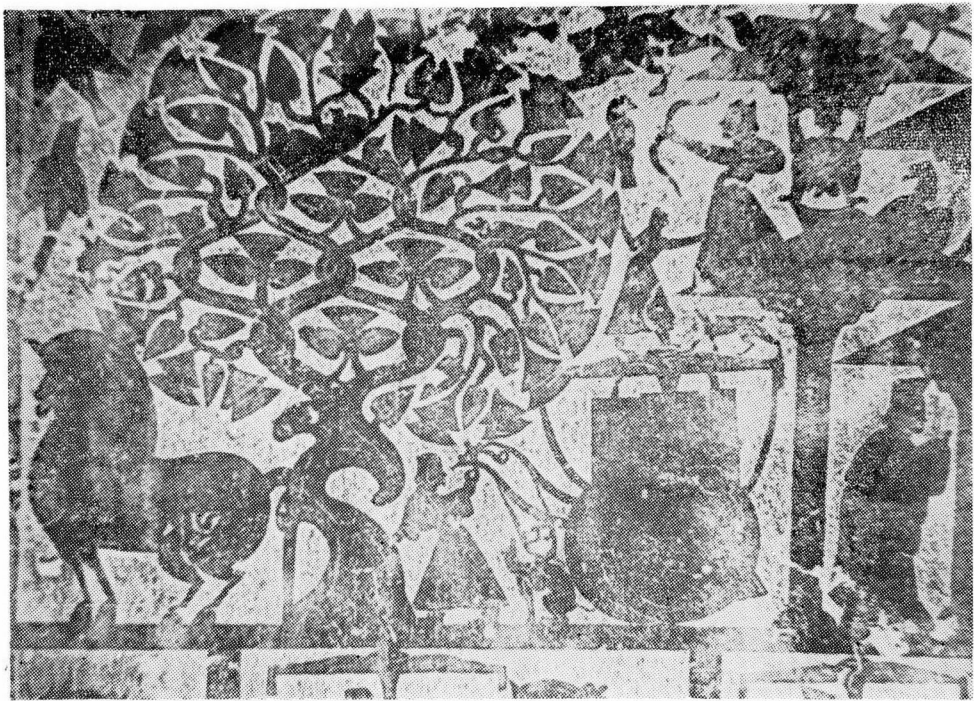


그림 10. 夫桑圖 畫像石 後漢 147年(建和元年) 山東省 武氏祠堂 後石室



그림 11. 東南쪽의 水入口部分의 懸瀑



그림 12. 池中에 물이 2段의 폭포로 떨어져 들어가게 된 構造.

이 樓에 오르면 사람이 물위에 뜬 기분이며 東便을 바라보면 巫山十二峯과 三神島가 약간 아래로 조망되고 아슬하고 망망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池中에서 배를 타고 건물을 보거나 巫山十二峯에서 건너다 보면 오색 아롱진 화려하고 장엄한 樓閣이 물속에 자태를 드러우고 아슬히 높게 보이도록 造營된 것이다.

건물지를 보면 크고 작고 높고 낮게 調和를 이루어 배치되었다. 다음은 造山인데 造山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은 中國의 漢代부터 있었던 것이다.

雁鴨池의 造山은 巫山十二峯인데 이는 오랜 세월동안 허무러져 그 原形을 알길이 없지만 한층기 긴 산맥을 북쪽 池岸따라 동에서 서로 배치하였고 또한 줄기는 東쪽 池岸에 북에서 南으로 배치하였으며 峽의 사이에 낮은 半島같은 공간에 완만한 산자락이 내려와 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낮은 언덕이 넓게 전개되기도 하고 긴 峽의 左右는 절벽 같은 山줄기가 평층처럼 빌려서고 峽의 깊은 골짜기에는 은밀하고 幽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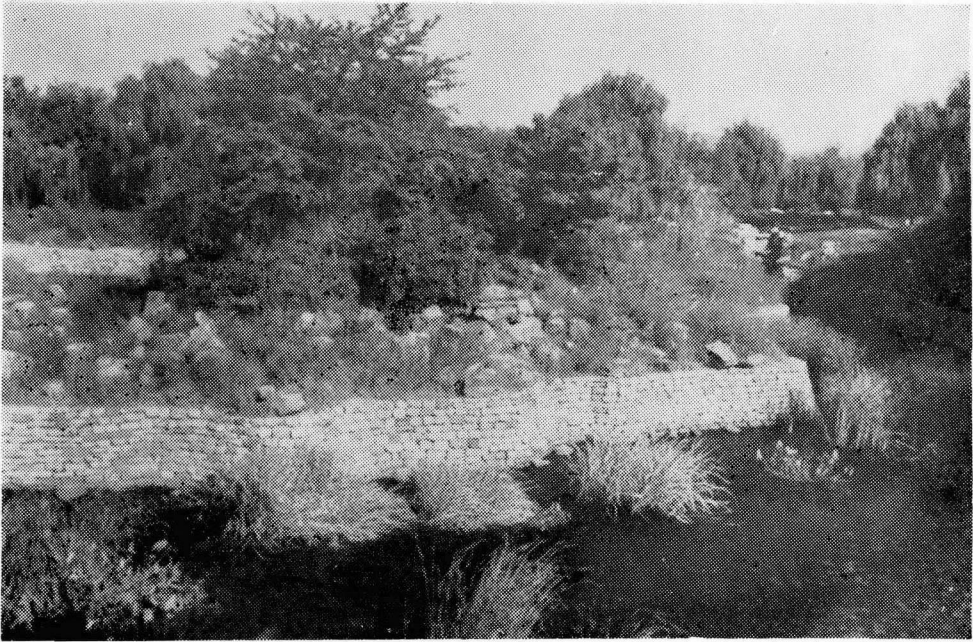


그림 15. 池中南의 섬으로 疊置의 깃범으로 大小石을 厠石하고 池岸石築 높이는 2.1m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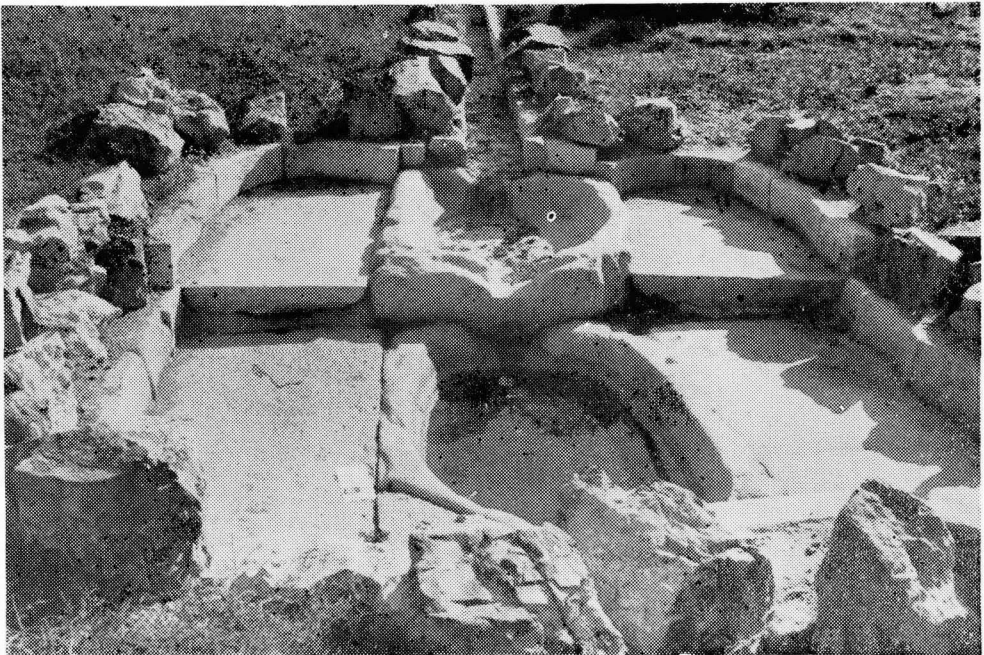


그림 16. 東南쪽에 있는 水入시설 潛流 自溢의 깃범이 보이고 上段石槽에서 下段石槽로 물이 넘쳐  
 흘릴때 龍頭를 통하여 龍口에서 물을 토하게 한것으로 보임. 「金時習의 詩 引水龍喉勢」



그림 13. 北쪽 池岸에 置石中 特置의 깃뚝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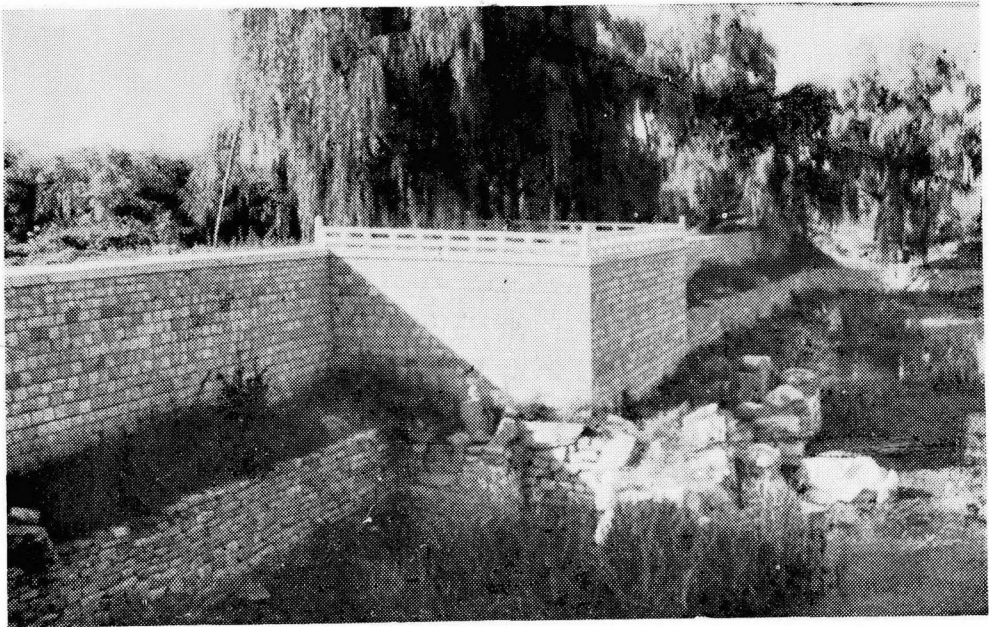


그림 14. 西岸북쪽의 建物址 높이 5.4m이며 그밑에 柁石을 群置의 깃뚝으로 置石함.

한 계곡이 조성되어 있다. 모두가 보였다. 감추었다 하는 효과를 주고 가까이면서, 아득한 시각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으며, 山水畫에서 보는 高遠과 平遠 및 深遠의 효과도 느껴진다. 步道는 巫山十二峯쪽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저 거닐고 싶으면 自然의 품실을 거닐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물이 있던 서쪽과 남쪽에는 회랑이 있어 전을 깬 步道가 있었다.

그리고 珍奇한 禽獸를 길렀다는 것은 白鳥나 사슴 거북 등 十長生園의 動物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슴은 안압지 발굴 당시 사슴뼈가 池中에서 出土되어 거의 확실하다.

못속에는 잉어 등 물고기도 길렀을 것이고 혹시 李太白의 詩句처럼 원숭이를 길렀는지도 모르겠다.

#### 四. 結 語

이 東宮은 王이 政事를 보던 正宮이 아니라 宴회를 베풀고 心身을 修養하며 즐거움을 얻던 月城의 別宮이었다.

이제 이 雁鴨池를 一部 復元한다면 이상과 같은 苑囿의 特性을 究究하여 現存의 遺構를 그대로 保存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管理해 나감에 있어서도 專門의인 造苑의 안목이 있는 專門家의 指導下에 관리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東洋의 古代 苑囿와 文蹟, 畫蹟等을 통하여 신라동궁의 苑囿를 고찰해 보았다.

#### 註

① 楚辭一屈原의 離騷經, 九歌, 宋玉의 招魂 明知大學 自由敎養研究所發行 貞姬譯. 一九六八.

② 三國史記

③ 三國遺事

④ 樂嘉藻撰. 中國建築史 第一編 庭園 華世出版社 中華民國.

⑤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二十一卷 慶州府

⑥ 晋山世橋 卷之四 姜希顔의 養花小錄. 晋山世橋重刊委員會. 一九七六年

⑦ 古文眞寶 李太白詩「觀元丹丘坐巫山屏風」

⑧ 森蘊 日本の庭園, 吉川弘文館, 一九六四.

⑨ 慶州市誌, p. 四一八

⑩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一九七三.

⑪ 金鍾太, 中國繪畫史 一志社 一九七六.

⑫ 金元龍, 高句麗古墳壁畫의 起源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二二輯 震檀學會 一九六〇. p. 四二一-〇六

⑬ 朱榮憲, 高句麗의 壁畫古墳 (永島暉臣慎譯) 學生社 一九七二.

⑭ 朝鮮太宗實錄. 卷一七. 太宗九年三月甲辰.

⑮ 久野健 辻惟雄 永井信一共著 秦弘燮譯. 日本美術史 悅話堂 美術選書. 一九七八.

⑯ 拙稿 新羅宮苑인 雁鴨池에 對하여 韓國造景學會誌 第三卷, 一九七六.

⑰ 李泰浩 韓國古代 山水畫, 弘益大學校 一九七八年

(國立中央 博物館 普及課長)

